

제시문 (라)의 작은 마을 주민들은 삼림을 공유한다. 주민들은 이 삼림의 목재를 가지고 뿔감으로 사용한다. 주민들이 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양에는 한계는 없지만 전체 나무 벌목량의 한계는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이 지나치게 나무를 베면 단기적으로는 그 개인에게 이득이 될지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개인 뿐만아니라 모두에게 손실이 된다. 마을 주민들은 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마을 주민들은 제시문 (가)의 필자의 입장을 해결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의 필자는 개개인은 타고난 인품을 통일할 방법이 없지만 이성을 가진 정부는 사람의 사람된 도리와 권리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이 때문에 의롭지 못한 무리들이 과격한 기질로 정부의 법도가 세운 질서를 파괴할 때 정부가 이성으로 힘을 제어하여 일정한 제도를 시행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의롭지 못한 무리들이 자기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도 이성의 힘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이와 같은 (가)의 필자의 주장은 (라)의 마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해결에 적합하다. 만약 의롭지 못한 무리가 자기 자신의 욕심을 과도하게 채우려고 할때,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들을 수용하여 (라)의 마을은 주민 자치회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민들은 자치회에 모여서 각자 구역을 정하고 얼마나 벨지 동시에 선택한다. 그 다음에 일주일과 같은 시간 간격을 두어서 다시 모인다. 이 때 각자 선택한 벌목량에 맞게 벌목을 했는지 공무원과 같은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감시한다. 또 그 공무원은 자신의 구역에서 누가 무단으로 벌목했는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이때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을 행한 사람의 구역을 정해진 규칙하에 감시자가 축소시키거나 사법처리를 시킨다. 이런 재조정의 과정을 거친 후 회의를 마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어떤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어 계속 반복한다.(996자)